

경인지역대학 총장들, 지역혁신 협력 논의

인하대, 34개교 총장협의회 개최
고등교육 발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인지역 대학 총장들이 모여 지역혁신 중심의 고등교육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지난 24일 정석학술정보관에서 경인지역대학 총장협의회를 개최해 지역혁신 중심의 고등교육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26일 인하대에 따르면, 이번 정기총회는 주관대학인 인하대와 회장교인 수원대를 포함해 총 34개 회원교의 총장과 총장 위임 참석자가 모두 함께 참여했다.

총장단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의 활성화와 지역대학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지자체·대학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임경숙 경인대학총장협의회 회장(수원대 총장)은 “인천과 경기지역 대학이 대한민국 고등교육 혁신의 중심이 될 것

이라고 믿는다”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연대와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학의 혁신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지역대학과의 연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차명돈 교육환경개선본부장이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립대학 학교복합시설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총장단은 대학 복합시설 활용 방안, 고등교육 정책 개선 과제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주관대학으로 총장단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소개와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명우 총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을 위해선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경인지역 대학이 머리를 맞대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안성시, ‘화성~안성’ 고속도로 본격 추진

민자적격성 통과… 2030년 착공

안성시가 숙원사업이던 ‘화성~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안성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해당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균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고속도로 건설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기대효과 등을 직접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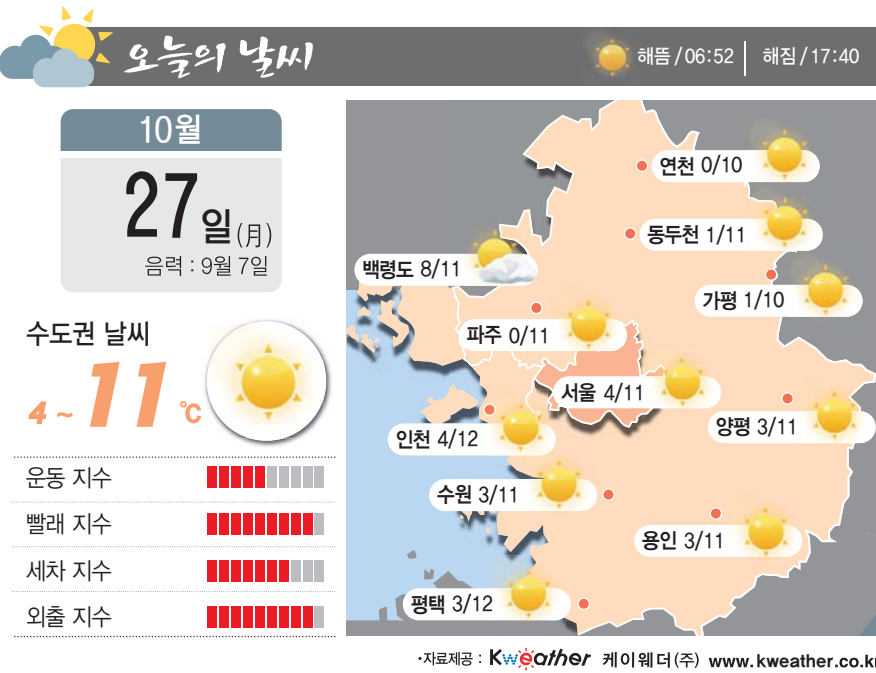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안성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숙원사업으로, 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윤종균 국회의원과 김보라 시장의 긴밀한 협력과 꾸준

한 소통이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되었고, 그 결과 민자적격성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출발해 평택과 용인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 나들목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약 45.3km, 왕복 4~6차로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총사업비는 약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안성 북부권의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산업 입지와 생활 편의성이 강화되며 지역 균형발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용인 남사·원삼, 평택, 이천 등 인접 도시와의 광역 연계가 강화되어, 안성이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과 물류 클러스터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상위권 ‘의대 쏠림’ 완화되나
과기원 수시 지원 5년 새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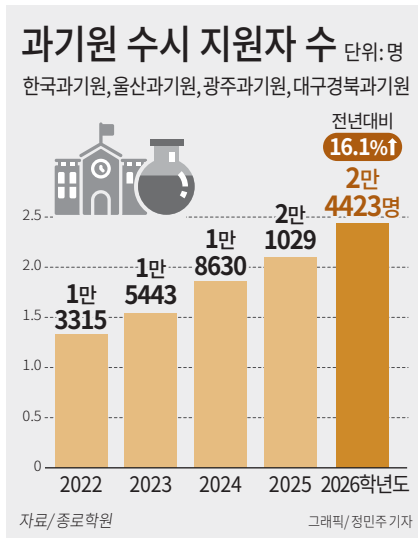
4개 과기원 수시지원 2만4423명
경쟁률 14.14대 1… 5년 중 ‘최고’
의약학대, 전년대비 21.9% 급감
이공계 육성정책, 산업경기 영향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전국 4개 한국과학기술원(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지원자 수가 최근 5년간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의약학계열은 최저치를 보이며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이공계 선호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그간 이어진 ‘의대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되는 양상이다.

26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4개 과기원 수시 지원자는 총 2만4423명으로 전년(2만1029명)보다 3394명(16.1%)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1만3315명 ▲2023학년도 1만5443명 ▲2024학년도 1만8630명 ▲2025학년도 2만1029명 ▲2026학년도 2만4423명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원 491명(7.6%) ▲울산과학기술원 1354명(20.6%) ▲광주과학기술원 377명(12.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72명(23.4%)이 각각 전년대비



늘었다.

경쟁률 역시 14.14대1로 ▲2022학년도 8.77대1 ▲2023학년도 9.47대1 ▲2024학년도 10.93대1 ▲2025학년도 12.30대1의 경쟁률을 보인 최근 5년 중 최고였다.

반면 전국 109개 의약학대(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의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11만2364명으로, 전년(14만3935명) 대비 21.9% 급감하며 최근 5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의대 지원자는 29.2%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13만8267명 ▲2023학년도 12만7840명 ▲2024학년도 12만3905명 ▲2025학년도 14만3935명 ▲2026학년도 11만2364명으로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중도탈락자 추이에서도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4개 과기원의 2024년 중도탈락자는 243명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의약학대의 중도탈락자는 ▲2020년 382명 ▲2021년 457명 ▲2022년 587명 ▲2023년 752명에서 2024년 1119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이자 사실상 역대 최고치다.

의대 모집정원이 약 1500명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약학계열 전반의 지원자 급감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반면 과기원과 대기업계열학과, AI학과 등 이공계 중심 학과의 지원자 증가는 정부의 이공계 집중육성정책과 반도체·AI 산업 호조세에 대한 수험생들의 민감한 반응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최근 수시 지원에서 의약학계열 쏠림이 완화되고 이공계 중심 학과로 관심이 이동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라며 “정부의 이공계 육성정책과 산업경기 흐름에 따라 수험생의 선택이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몰림’ 현상이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취임 1주년’ 정근식, 미래 교육 논의한다

서울교육청, 협력교육 성과발표회
학생·교사·시민 등 500인 대토론회
2026년 교육정책 방향 등 비전 공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추진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주요 성과 발표회와 500인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서울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규모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27일 오후 3시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1년, 약속과 실천에서 비전으로’를 주제로 실천성과 보고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공약추진위원회, 공약평가단,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관계자, 학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교육감 공약사업의 추진과정을 되짚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의 1년 성과를 발표하고, 공약추진위원장이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토크콘서트 형식의 토론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지난 23일 저력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 진행돼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과 정책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일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날인 28일 오후 3시 신도림 웨딩시티 그랜드볼룸에서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1년, 함께 만드는 미래 500인 대토론회’가 열린다.

학생·교사·학부모·시민 등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2026년 서울교육의 비전과 핵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근식 교육감의 기조강연을 시작

으로 학생참여위원회·학생참여단·학부모동행단·교사정책동행단·시민참여단 등 각 주체들이 현장의 변화를 공유한다.

특히 ▲학생자치 활성화 ▲학부모의 정책 참여 ▲교원의 협력문화 확산 ▲시민의 정책 제안 및 참여 확대 등 협력교육의 구체적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50개 분임으로 나뉘어 ‘2026년 서울교육 정책 및 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논의 주제는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안착 ▲교육소외계층 지원 ▲AI·디지털교육 활성화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교육 ▲학교자치 및 거버넌스 강화 ▲학생 마음건강 회복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서울교육 홍보 및 시민소통 강화 등 10대 핵심 과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성과 보고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해 서울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며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함께 꿈꾸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아일랜드 대선에서 좌파 캐서린 코널리(68) 10대 대통령 당선
▲이란 총리 “미 정부와 교류할 긍정적인 기반 전혀 없어”

/사진 뉴스1

▲트럼프·다카이치 첫 통화…“美日 동맹 위상 강화”
▲日신형 우주 수송선 HTV-X 발사 성공…ISS에 물자 운반

▲한·중남미 미래 경제협력 강화…“비즈니스 서밋” 개막
▲트럼프 “캐나다에 10% 추가 관세”…‘反관세 광고’에 발끈